

국회정각회 총무원장스님 초청 신년법회 법어

일시: 2013년 3월 5일 오전 7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삼 년 전에 정각회 법회에 참석하고 삼 년만에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그때 주최측에서 7분정도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7분 맞추느라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몇 분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정각회 회원님들이 여야 다 한자리에 모여서 법회를 보게 되서 마음이 매우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열정과 의욕을 가지시고 정각회 회원님들이 화합해서 같이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회는 전설의 고향에 가까운 옛날이야기를 설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계셨는데, 이 스승은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을 다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느날 스승이 죽자 그 말을 따르고자한 제자 두 분이 스승을 따라 갔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스승을 따라서 큰 화려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볼 수 없던 화려한 세계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랑 삼아서 “내가 사바세계에서 외쳤던 극락이 이곳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부족함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호화호식을 하면서 한 열흘쯤 지나 갑니다. 열흘쯤 있다 보니까 우리 사바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갈등과 시비와 다툼과 어려움이 많은 이곳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통 받고 있던 우리 사바세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니깐. 한번 보여 줍니다. 보여 주니까 이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만 보더라도 교통도 복잡하고, 다툼도 많고, 작게는 부자간에 부부간에 고부간에 갈등, 크게는 사회적 갈등 노사간의 갈등, 더 크게는 여야간에 갈등 정부의 갈등 남북간의 갈등 한일간에 갈등 중국간에 갈등 세계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여의도쪽을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요즘 여의도는 지금 갈등이 어떻습니까.

○○○의원: 여의도는 갈등이 없습니다 (대중들 웃음)

아마 그 위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를 내려다보니까 국회와 정부쪽에서 조직개편안 땀에 극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극락세계를 잘 왔다고 하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러던 분들이 한 삼 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해서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위안을 받으려고 “다시 지옥세계를 보여달라” 고 해서 또 내려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일 년쯤 지났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극락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제가 요거 금으로 만든 목탁입니다. 핸드폰 고리인데, 요거 맞추면 선물로 줄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점잖은 국회의원님들은 말씀 안하실 것 같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극락이라고 생긴 여기 이곳이 어니냐 라고 묻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직원 불자: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앉아있는 자리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대중 웃음) 극락이라고 생각한 이곳이 일 년이 지나니까 무료하고 지루하고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해서 바랄 것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극락이라고 생각한 이곳이 의아심이 생겨서 그 지킴이한테 “이곳이 어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의원: 지옥입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손들어 보세요. 들어오세요. 한 분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물어서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고리입니다. 이 핸드폰 고리는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뜻대로 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도해서 올리는 목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곳이 극락이라고 생각해서 죽어서 스승을 따라 죽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이 극락인 줄 알았는데 일 년만에 아무 할 일 없이 요구하는 바 없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니 이곳이 지옥이라 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있는 곳을 사바세계, 지구를 ‘남선부주’라 합니다. 남선부주는 고해라 하는데 고해가 뭇니까,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극락세계는 그와 같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바랄 것이 없는 이 사바세계는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희노애락과 희망과 열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갈등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누가 갈등이란 말, 한어를 설명할 분 계신가요

○○○의원: 침나무와 등나무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침과 등나무인데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금
목탁 증정)

침 ‘갈’자 등나무 ‘등’자입니다. 근데 침과 등나무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냐. 침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
로 왼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엮어져 올라가면서 침과 등나무가 얽혀져
있으면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과 등나무를 이 갈등을 해소
시키려면 뿌리를 끊어서 풀어야만이 풀어집니다. 그만큼 갈등이라고 하
는 것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갈등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도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타고 넘어가야 될, 풀고 넘어가
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는 이런 갈등이 있기 때
문에 극락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일이 없다
고 그러면 정작 죽어서 극락이라 했던 곳이 지옥인 줄 깨달듯이 우리 이
곳에 있는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이 갈등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
아야 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봤
는데 국민학생이 답을 했는데 “갈등이 뭘니까?” 라고 선생님이 물으니까
국민학생이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임수경 의원이 얘기해 봐요 속으로 하지 말고. 국민학생의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려’하고 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러니
‘배려’라고 했습니다. ‘배려’란 말도 어린 학생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답
이지만 ‘배려’만으로는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게 가끔 있습니다. 얼룩말 수십 마
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룩말 한 이십미터 내지 삼사십

미터 정도에 사자가 누워서 여유있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자가 삼사십 미터 경계선에서 여유있게 자고 있어도 얼룩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마리 얼룩말 중에서 한 마리만 사자에게 먹이를 주면 사자가 배불러서 소화 시킬동안 삼사일 동안은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배려보다 우선되는 것이 공존입니다. 공존의 방법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이 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얼룩말은 그 많은 몇 마리 수십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떼어주면 사자는 그걸 먹고 소화시킬 동안 편안히 서로 편안하게 삽니다. 또 사자가 옆에 있음으로써 하이에나나 다른 짐승이 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고받음이 분명합니다.

이 절충의, 조화의 지혜를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화이부동’.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하듯이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절충과 조화, 주고받음이 분명한 것이 화이부동입니다. 이 화이부동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서로 공존 공생 상생 화합 이런 수많은 단어를 쓰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생을 논하고 갈등 해소를 외치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상생과 화합을 외치고 소통을 외치고, 많은 학자들이 똑같은 말들을 해오지만은 그 풀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힘과 힘으로써도 풀 수 없고 이해와 이해로써도 풀 수 없고, 이 갈등의 해소는 아프리카에서 얼룩말과 사자가 공생하는데 의미를 갖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이 속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절충과 조화 이 지혜는 정치권에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 18대 대통령 취임식때 취임사를 듣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 모토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부흥’이라는 말을 타이틀로 썼

고, 두 번째 ‘국민행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융성’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모토로 취임사를 한 것을 보고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일 또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불경에 ‘백천입해 동일한미’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천’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냇가의 물이 백 개의 냇가의 물이, ‘입해’ 바다로 들어온다. 바다로 들어오는데 동일한미 다

맛이 한 맛이다. 한강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물이나 낙동강에서 흘러간 물이나 어느 골짜기에서 흘러간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동일한미다. 동일한미 그 맛은 차다 이거예요

어느쪽 어느 골짜기 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도 그 물은 짜다. 한강쪽 물이 싱거운 것이 아니고 낙동강 물이 들어갔다 해서 싱거운 것이 아니고 바다에 들어간 모든 골짜기의 물들은 한마디로 짜다.

대통합을 이루고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행복을 이루고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천입해 동일한미 이런 확고한 넓은 바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국민 통합을 이루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화이부동하는,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풀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현실들은 구호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불자 정각회 여야 의원들께서도 크게는 대통합은 누구의, 대통령의 외침이 아닌 우리 국민의 외침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 행복을 위하고, 문화융성을 위하고,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직면해 있는 갈등 해소를 얼룩말과 사자가 지혜롭게 절충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이러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단하게 법회를 마치겠습니다.